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콩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10월호 독자 후기

김남희(고양시 덕양구)
고양누리버스가 소외된 시민을 위해 운행해 마을의 다리 역할을 해줘 고맙습니다. 고정인 씨의 봉사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지오(고양시 일산동구)
포토뉴스 코너가 가장 유익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호 문장의 신 당첨자

< 10월의 단어 >

가을, 바람, 하늘, 풍성

모상철
파란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은 두둥실 떠다니고, 갈바람에 만산홍엽 흥에 겹고,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는 가을걷이에 풍요로운 마음속 신바람이 부는 이 가을이 좋아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

글 최옥순(고양시 일산동구)

계단에는 참(站)이 있다. 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방향을 전환하거나 가쁜 숨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쉬어가는 용도의, 다른 디딤판(Step)보다는 조금 넓은 판을 말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달라져버린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자니 문득 30년 전 초임 시절이 떠오른다. 대학교 졸업 후 용인에 있는 6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나서 부랴부랴 엄마와 함께 올라와 전세방을 얻고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신규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는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 농촌학교였다. 초등학교의 3월은 예나 지금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혼자 살게 된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랴, 업무 파악, 환경 정리 그리고 처음으로 맡게 된 아이들의 특성 파악 등 하루하루 긴장되고 정신없는 3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렇게 쫓기듯 3월을 보내고 난 4월 첫 주 토요일,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돌아서자마자 1년 먼저 첫 부임을 해온 김 선생님으로부터 쪽지가 왔다. 이제 4월이니 봄꽃도 좀 바라보며 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오라는, 다음 주에는 차 한잔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 보자는…. 그 쪽지를 받고서 나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온몸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신경 줄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면서 눈물샘마저 터져버린 모양이었다. 혼자서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개운해졌다.

또 하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닐 때였다. 아버님이 위암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장기간은 아니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정신없이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간단한 음식 준비해서 병원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뒤척이기만 하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자다 말고 톡톡 다독이며 '당신 많이 힘들구나!' 하더니 돌아누워 다시 곤한 잠에 빠졌다. 그 순간 갑자기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남편이 잠결에 던진 그 한 마디가 뭐길래 복잡하던 마음이 정갈해진 걸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얼마 전 이슈가 된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평소에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조차 만나자고 말하기도, 만나자는 제안에 응하기도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답답한 요즘,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소소하게 전하는 안부나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에도 참(站)은 있어야 하니까.